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 개혁

이영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앨빈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의 충격(The Future Shock)’에서 세계는 일련의 강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도전과 변화는 교육조직의 역동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승자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학은 지식사회로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충격의 중심에 서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변화시킨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등교육은 사회·경제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교육은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 노동자’의 훈련과 제공,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공, 영리활동 참여 등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독립적인 상아탑에서 탈피하여 산학연협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MERCOSUR) 등의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evaluation) 또는 평가인증(accreditation)은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의 고등교육은 현재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대학원을 졸업한 고급 인력의 부족, 교육 기반 구축의 미흡,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개혁의 과정에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공통적으로 20세기 이후 세 번의 개혁과정을 거쳐 왔다.

첫 번째 개혁은 20세기 초반에 나타났으며, 주요 특징은 공립 고등교육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Public Monopoly Model). 두 번째 개혁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으며, 고등교육 진학 요구 증대 및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등장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형태가 다양화 되었다(Dual public-private Model). 세 번째 개혁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 국제화의 진전, 고등교육에 대한 질 보장과 관리 등이다(Triple public-private-international Model).

이 글에서는 20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1990년 중반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고등교육분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의 개혁

1. 첫 번째 개혁 : 자율성과 정부협력체제 구축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 개혁은 도시민과 중산층의 요구, 근대화·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의 민주화, 대학교육 규모의 확대, 전문직 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8년 코르도바(Cordoba) 개혁에서 발화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협력체제 구축 및 공립 대학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의 엘리트모형을 극복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시민들이 전문직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었다. 경제적 모형을 근거하여 새로운 고등교육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는 1970년대 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 공공에 의한, 무상의, 자치에 의한, 대중에 대한 고등교육모형은 상당 기간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2. 두 번째 개혁 : 다양화와 자유시장체제 도입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적 학생운동은 대학이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학생운동은 캠퍼스 불가침권, 자율성 증대, 예산투쟁, 교육과정 및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중등교육 졸업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고등교육의 수용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생운동과 더불어, 산업화 모형의 위기와 1차 생산품의 가격 하락(이 두 가지 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

된 문제였음)은 지속적인 재정·무역 위기를 가져왔으며, 공립 고등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공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970년대의 원유 값 폭등, 수출가 하락, 농산물 무역 폐지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공 투자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고등교육의 확대 등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한 방법은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보다 비용 소요가 적은 새로운 형태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고등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사립 고등교육의 도입이 해답이 되었다. 아울러, 공립, 사립 모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도 대학(university)을 비롯하여 기관, 센터, 학교 등 대학이 아닌 소규모 고등교육기관(non-university)으로 다양해졌다. 고등교육기관의 확충과 다양화는 공립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일부 줄이고 고등교육의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고등교육기관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는 198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의 '고등교육에 있어 자유시장(free market)은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학생은 최고의 고등교육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들은 학생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을 달리 제공했으며 전문직 노동 시장에 대한 합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전문직 노동 시장 또한 인력 고용의 융통성이 적어 고등교육 졸업자가 학위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고등교육의 자유시장' 개념은 한계를 나타내었고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고등교육의 위

기는 엘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언급한 지식혁명과 사회의 변화에 고등교육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21세기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의 개혁 : 대중화, 규제, 국제화

199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고등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에는 고등교육의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며 NAFTA, MERCOSUR 등의 다양한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진전되었다. 고등교육의 팽창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무역협정에서 전문직의 자격 조건이 명시되고, 자국의 고등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편으로서 평가 및 평가인증이 강조되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충격은 국제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토착민·소수자의 다양한 요구들, 지식사회로 전환됨에 따른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들, 지식의 상업화 및 혁신 등에 관한 것이다. 국제화는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있어 국제적 질 기준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국의 고등교육이 국제적이면서 지역적인 적합성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영향은 교육의 국제화, 거리의 단축, 교육의 경계 파괴, 네트워크기반의 교육 등과 함께 교육방법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형태와 혁신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전되고 있다. 국제화 과정의 산물로서 고용 불안정이 심각해지자 사람들은 생존전략의 하나로 학업연한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와 지식사회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유도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의 특징에 대

하여 고등교육 등록생, 새로운 규제, 대학원 교육, 재정 확보, 산학연 협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고등교육 등록생

대중화(massification), 여성화(feminization), 사립화(privat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 차별화(differentiation), 분할화(segmentation) 등으로 표현되는 라틴아메리카 대학들의 변화는 학생들의 특성과 역할을 변화시켰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는데,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고, 1999년 이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2000년부터는 고등교육 등록생 수가 매년 135,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고등교육 등록생 수는 83%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500만 명을 돌파하였다<그림 1>.

<그림 2>는 소득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1994년의 현황을 100%로 하여 연도에 따른 소득 및 고등교육 등록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 총생산과 국민 1인당 소득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하여 고등교육분야에 등록률은 80% 이상 증가하였고, 사립 고등교육 분야의 등록률은 10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화와 미래 불투명성에 따른 생존전략으로서 학업연한 연장으로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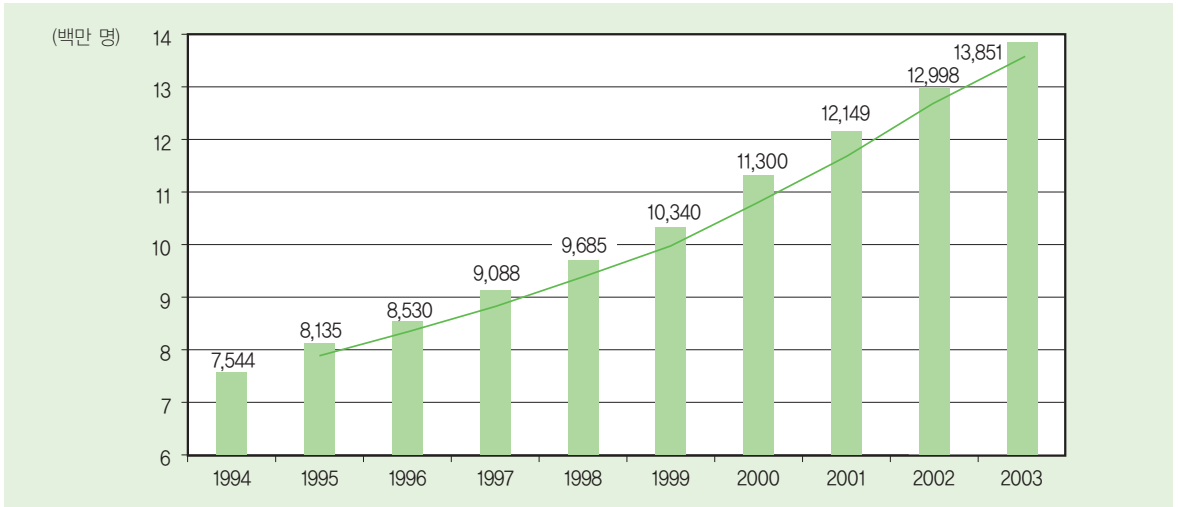
고등교육의 여성화는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고등교육은 여성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매년 증가하여 상황이 역전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고등교육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바베이도스(Barbados)가 71.8%(2003년)로 가장 높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능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전체 평균도 54.3%로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참조). 이런 점에서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고등교육의 확대는 남·녀 불평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규제 : 평가와 평가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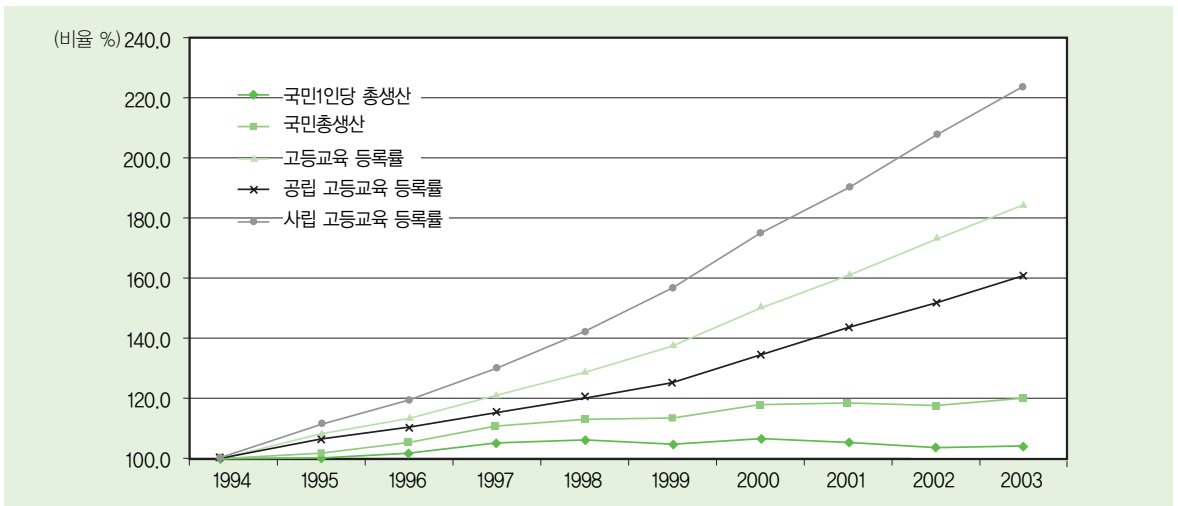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에 있어 1990년대 중반 이후 10년은 '고등교육 질 강화 10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1980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고등교육의 확대에 의하여 교육의 질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에 의한 장학·감독의 기능으로서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인증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 및 평가인증은 많은 경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별도의 기관이나 조직(학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프로그램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 자료출처 : Claudio Rama (2007), The Third Re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assification,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그림 1.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 등록생 수 추이



* 자료출처 : Claudio Rama (2007), The Third Re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assification,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그림 2. 라틴아메리카의 소득 및 고등교육 등록률 추이

평가 또는 평가인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평가 및 평가인증 기관들은 고등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도달해야 할 최소 수준의 질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경찰(academic poli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의 고등교육 개혁 기간 동안 질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없이 설립되었던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립 고등교육기관들 중 일부는 평가 및 평가인증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질 관리와 병행하여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와 장학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대학총장협의회들이 설립되어 자율적인 질 제고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 질 관리 기구, 대학총장협의회들은 종종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대립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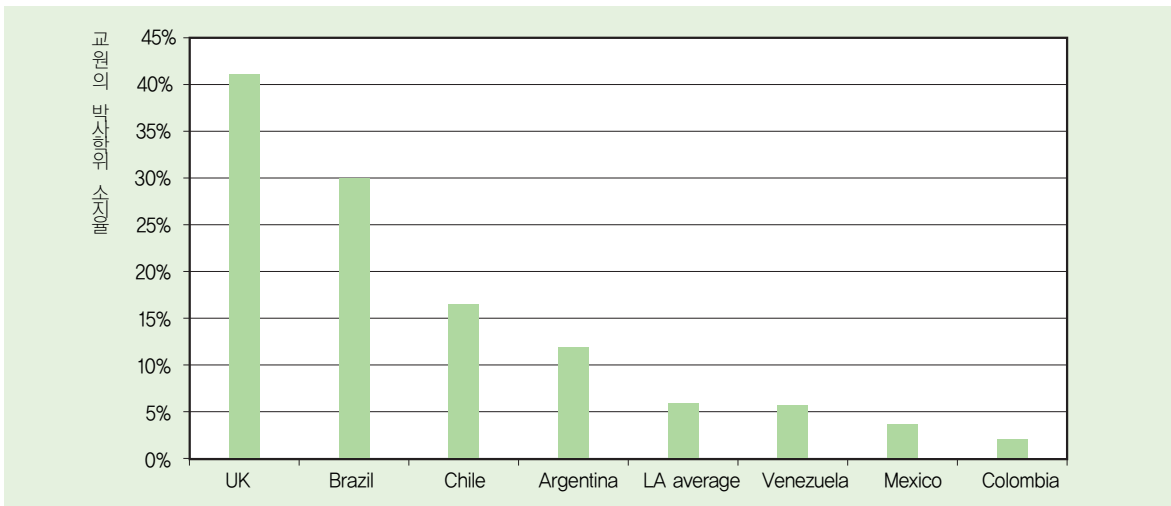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따라 정부와 질 관리기구들은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맞추어 그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국제화에 따라 한 나라의 교육이 단지 자국만의 공공재(public commodity)가 아니라 국제적 공공재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평가 및 평가인증 기

구들은 평가준거와 기준, 방법 등에 있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3. 대학원 교육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 학부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대학원교육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박사학위자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국가도 많다. 2001년 기준으로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라틴아메리카 평균(LA average)이 6% 내외이며,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영국(UK)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은 학부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등교육 등록생 중 대학원 등록생의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3% 내외이며 증가 속도도 매우 느리다. 또한 2003년을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등록생은 대략 13% 수준이다. 이와 같이 빈약한 대학원 등록생 자원으로 인하여 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충분한 연구자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자 세대의 교육·훈련에도 어려



* 자료출처 : Kristian Thorn, Maarja Soo(2006), Latin American Universities and the Third Mission: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World Bank.

그림 3. 라틴아메리카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박사학위 소지율(2001년 기준)

움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선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전일제연구자는 인구 천명당 1명꼴로 6명인 스페인, 7명인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각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외국에서 교수로 채용되도록 돕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칠레는 1999년부터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박사학위 장학금을 만들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박사학위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 있다.

4. 재정확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국가의 GN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의 비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1%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있어 이들 예산의 대부분은 운영예산(87%)으로 소요되어 투자나 타 용도로 활용되는 예산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이 대부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더욱 증대되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조직의 경직성, 산학연 협동의 부진 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재정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학생당 연간 교육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02년 브라질의 경우 연간 6,000 USD에 육박하지만 1,000 USD 수준의 국가도 많은 편이다. 또한 국가 내에서의 교육비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컬럼비아의 경우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학생당 연간교육비는 4,500 USD부터 1,000 USD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의 차이는 교육의 질에 있어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5. 산학연 협동

아르헨티나, 브라질, 컬럼비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60% 이상의 연구자들은 대학에 고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는 아직 미약하다. 산학연계가 미약한 이유에는 기업들이 대학 교원들의 낮은 박사학위 소지율, 낮은 응용연구 실적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질과 연구 역량에 대해 호의를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가의 대학원 등록 현황

국가	지표	대학원 등록생수(명)	고등교육 등록생 대비 대학원 등록생 비율(%)
Mexico (2003)		139,669	6.0%
Brazil (2003)		107,400	2.8%
Venezuela (2003)		67,378	6.8%
Colombia (2002)		57,277	5.7%
Cuba (2002)		21,002	7.7%
Chile (2003)		14,911	2.6%
Dominican Republic (2003)		9,725	3.3%
Panama (2004)		5,239	4.0%
Bolivia (2002)		4,230	1.4%
Guatemala (2004)		3,325	1.5%
Honduras (2004)		3,010	2.5%
El Salvador (2002)		1,285	1.1%

* 자료 : Claudio Rama(2007), Graduate degrees in Latin America in the society of knowledge,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가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 또한 대학의 연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 역량이 약하기 때문이다.

산학연계가 낮은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 등 공공기관의 연구자의 경우 기업 등 사적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 내부지향성(inter-oriented)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에 고용 및 승진 시 학문적(academic) 연구 결과에 대한 비중이 높고 학문적이지 않는 상호협력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계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수는 오히려 학문적 경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관료주의의 경직성은 영역 간 이동과 공적-사적 연계를 어렵게 하는 한편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산학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정책결정자나 대학 지도자의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적-사적 연계 연구 및 프로젝트에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외부기금 유치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대학의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0년 이후 산학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칠레의 경우 응용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인적 자원의 이동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부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기업과 대학 모두에게서 논문 작성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이 획득해야 할 기술들을 정의한 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을 산업계의 요구에 질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mérica Latina-Formacion Academica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교육구조의 변혁을 위해 추진 중인 Tuning Latin America 프로젝트에서는 각국의 120여 개 대학들이 상호 협조하여 산업계와 협력 하에 여덟 개의 산업영역에서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능력들을 정의하고 있다.

IV. 결론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은 20세기 초반부터 지속적인 개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

표 2. 라틴아메리카가 주요국가의 GN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 변동 추이(%)

국가 \ 연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CUBA	1.35	1.72	1.54	1.40	1.56	2.25	3.27
PANAMA	1.30	1.79	1.66	1.28	1.28	1.27	1.16
NICARAGUA	1.40	1.50	0.80	0.90	1.00	1.10	1.20
BOLIVIA	1.01	1.16	1.18	1.35	1.16	1.39	-
HONDURAS	-	-	0.70	0.88	1.00	1.20	-
PARAGUAY	0.40	0.50	0.80	0.90	1.10	1.00	-
COSTA RICA	1.10	1.10	0.90	0.80	0.80	0.90	-
BRAZIL	1.00	1.00	1.00	-	1.00	1.00	-
MEXICO	0.55	0.70	0.76	0.66	0.74	0.82	-
COLOMBIA	-	0.43	0.58	0.55	0.73	0.76	0.74
ARGENTINA	0.40	0.53	0.57	0.54	0.62	0.68	0.26
DOMINICAN REP.	0.09	0.15	0.11	0.16	0.32	0.29	-
URUGUAY	0.50	0.40	0.40	0.40	0.40	0.50	-
GUATEMALA	0.23	0.35	0.26	0.24	0.27	0.35	0.27

* 자료 : Francisco Rodriguez Orostegui(2007), Financing of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 Panoramic vision,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은 고등교육 및 대학원 진학률과 이에 따른 고급 인력의 부족, 고등교육 재정 확보의 어려움, 산학연 협동의 부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함께 평가 및 평가 인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AFTA, MERCOSUR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 무역공동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 개방 과정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개방은 항상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방의 과정에서 고등교육이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6월 페루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되며, 11월에는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와는 FTA를 체결하였고, 멕시코와 FTA를 추진 중이며, MERCOSUR와는 FTA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 중이다.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인적 교류,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사회·문화·경제적 협력은 더욱 증대할 것이며, 고등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상호 인적 교류 또한 빈번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향후 고등교육 분야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호환성이 높은 평가 및 평가인증 모형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Carmen Garcia-Guadilla, Sylvie Didou Aupetit, Carlos Marquis(2002), New Providers, Transnational Education and Accreditation of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Global Forum on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Accreditation and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IESALC).
- Claudio Rama(2007), Graduate degrees in Latin America in the society of knowledge,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 Claudio Rama(2007b), The Third Re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assification,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 Ernesto May, David Shand, Keith Mackay, Fernando Rojas, Jaime Saavedra(2006), Towar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ld Bank.
- Francisco Rodriguez Orostegui(2007), Financing of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 Panoramic vision,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 IESALC(2007),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
- Kristian Thorn, Maarja Sool(2006), Latin American Universities and the Third Mission :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WPS4002), World Bank.
- UNESCO/OECD(2005), 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UNESCO.
- World Bank(2005),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World Bank.

필 · 자 · 소 · 개

이영학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중앙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평가, 대학교육과정 및 문화이다.

부록 표.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참여 현황(2003년)

지표 국가	등록자 수 (명)	인구 (천명)	20세-24세 인구 (천명)	인구 만명당 고등 교육 학생수 (명)	20세-24세 인구 중 고등교육 등록자 비율 (%)	등록생 중 여성 비율 (%)
Antigua and Barbuda	1,867	73	6.6	256	28.1	-
Argentina	2,010,830	37,870	3,351.4	531	60.0	59.3
Bahamas	6,369	314	27.0	203	23.6	-
Barbados	8,003	270	20.9	296	38.2	71.8
Belize	4,338	256	25.8	169	16.8	-
Bolivia	312,769	9,025	809.3	347	38.6	45.0
Brazil	3,887,022	182,470	17,120.5	213	22.7	56.4
Chile	567,114	15,929	1,227.9	356	46.2	48.0
Colombia	1,035,006	44,562	4,039.9	232	25.6	51.3(2002)
Costa Rica	170,423	4,167	393.9	409	43.3	53.1(2002)
Cuba	273,588	11,306	720.6	242	38.0	61.8(2002)
Dominica	1,420	79	7.2	180	19.8	-
Ecuador	286,954	12,843	1,295.9	223	22.1	-
El Salvador	116,521	6,638	659.0	176	17.7	54.8
Grenada	2,533	80	7.3	317	34.8	60.1
Guatemala	218,466	12,084	1,186.7	181	18.4	-
Guyana	11,135	765	78.2	146	14.2	-
Haiti	-	8,827	-	-	-	-
Honduras	120,012	7,001	677.1	171	17.7	55.9
Jamaica	45,770	2,651	254.8	173	18.0	69.9
Mexico	2,322,781	103,301	9,723.6	225	23.9	48.7
Nicaragua	104,403	5,268	550.9	198	19.0	54.3
Panama	132,167	3,116	261.9	424	50.5	60.6
Paraguay	108,812	5,922	551.5	184	19.7	51.2(2002)
Peru	871,145	27,148	2,629.4	321	33.1	44.6(2002)
Dominican Republic	293,169	8,819	797.7	332	36.8	65.0(2002)
Saint Kitts and Nevis	658	42	4.0	157	16.5	61.7
Saint Lucia	-	149	15.2	-	-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688	120	11.5	141	14.7	66.2
Suriname	5,186	436	44.2	119	11.7	67.2(2001)
TrinidadandTobago	12,316	1,303	133.7	95	9.2	61.1
Uruguay	105,268	3,408	260.0	309	40.5	61.0(1999)
Venezuela	997,662	25,672	2,372.6	389	42.0	60.3(1999)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전체	13,991,517	541,914	49,266	259	28.5	54.4
라틴아메리카 전체	13,896,522	526,549	48,630	265	28.7	54.3
캐러비안 전체	94,995	6,389	621	149	15.3	68.0

* 자료 : IESALC(2007), Report o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2005, IESALC.